

물류창고 출발



새벽을 달려



보건소 도착



경기도 이천 대형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수송차량에 실리고 있다.

백신을 실은 수송차량들이 경찰과 군사경찰 차량의 호위 속에 전국 각지의 보건소로 향하고 있다.

수송차량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에 도착하자 보건소 직원이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특전요원의 호위 속에 대기하고 있다.

오늘 접종 시작... 긴박했던 수송현장

‘백신의 시간’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수송하는 차량에 부착된 ‘군 제작 특수봉인지’. 봉인지를 떼는 순간 색이 바뀐다.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수송지원본부)의 25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수송 장면을 보며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이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다. 이날 AZ 백신 수송현장을 감싼 긴장감부터 단계별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지난 3일과 19일 시행한 ‘범정부 백신 유통 2차 모의 훈련’ 당시와 똑같았다. 수송지원본부 장병들은 훈련에서 숙달한 절차를 한치의 오차 없이 준수하며 백신을 전국 각지의 보건소로 신속하고도 안전하게 옮겼다. 장병들의 노고 덕분에 26일부터 백신을 접종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마무리됐다. 경기도 이천 대형물류창고에서 각 보건소로 AZ 백신이 수송되는 장면들을 화보로 소개한다. 글=최환영/사진=한재호·이경원 기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직원들이 도착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량과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동안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특전요원들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수송차량 앞에서 경계하고 있다.



경기도 이천 대형물류창고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입고된 가운데 장병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백신을 담은 ‘72시간 정온 수송 용기’가 수송차량 안에 적재된 모습.